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 知

코스닥에 잠깐 돌렸던 시선, 코스피로 복귀할 때 (8월 3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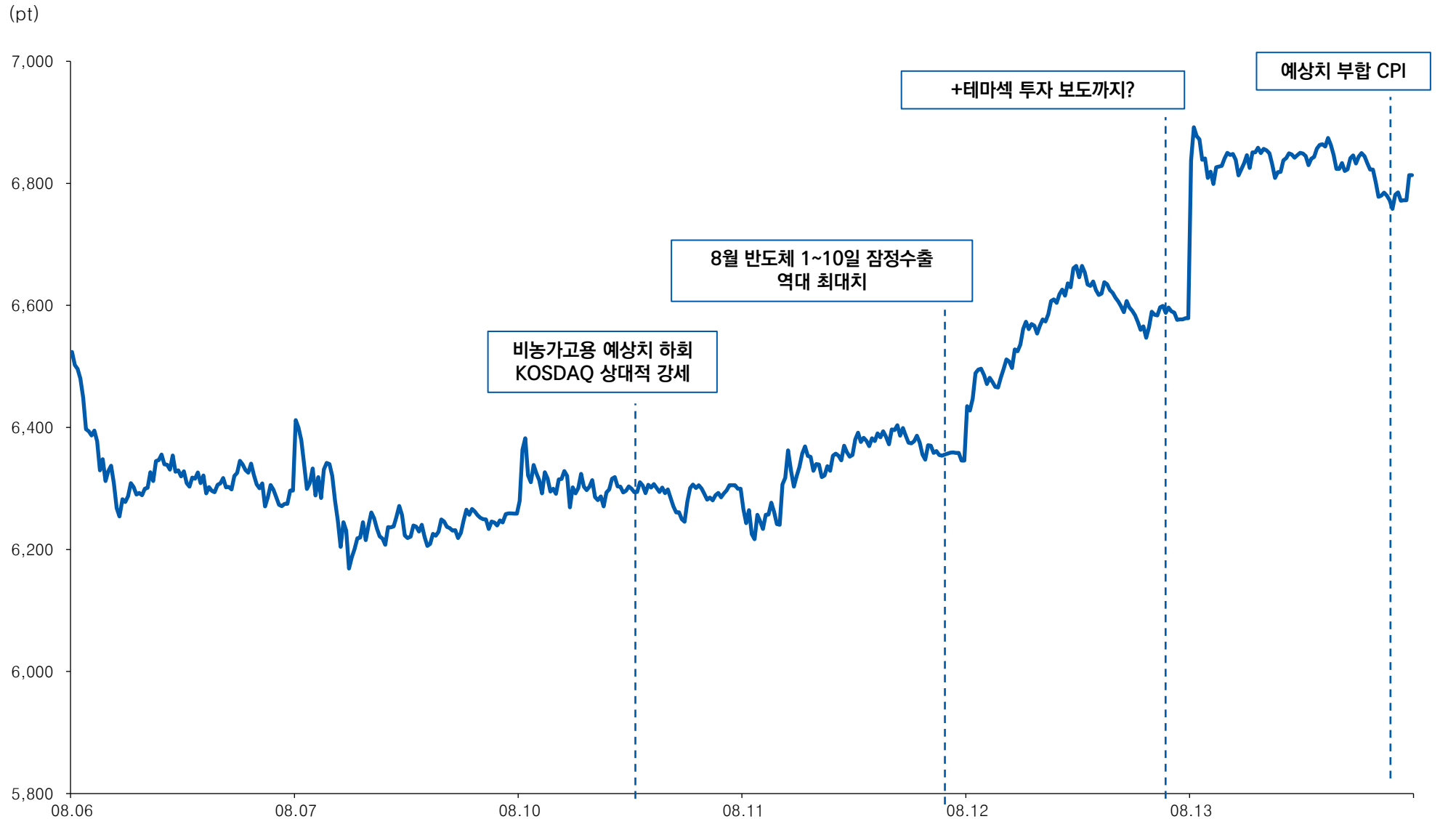
SUMMARY

코스닥에 잠깐 돌렸던 시선, 코스피로 복귀할 때 (8월 3주)

- 주간(8/7~8/13) KOSPI, KOSDAQ은 각각 8.2%, 7.5% 상승했습니다. 비농가고용 부진에 이어 소비자물가는 예상치에 부합하고 생산자물가는 예상을 하회하면서 금리 불확실성이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 기업들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며 외국인은 KOSPI에서 주간 5.1조원을 순매수했고, KOSPI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재차 회복했습니다.
- 8월 초 KOSDAQ 비중 확대 전략은 개인 수급 복귀와 대형주 쏠림 완화에 힘입어 유효했습니다. 다만 2024년 이후 국내 모멘텀 스타일은 KOSDAQ보다 KOSPI와 높은 동조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KOSPI 이익추정치는 지속 상향됐고 외국인 자금 역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유입됐습니다. 단기 낙폭과대 반등 이후에는 결국 이익과 수급이 뒷받침되는 KOSPI로 다시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 코어위브·네비우스의 AI 클라우드, 슈퍼마이크로의 AI 서버, 루멘텀의 광통신까지 AI 인프라 전반에서 호실적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글로벌 금융사들과 5,000억달러 이상의 제3자 자본을 동원하는 AI 인프라 금융 플랫폼을 추진하면서 AI 설비투자의 수요 지속성과 자금조달 양쪽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한국시각 8월 27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AI 관련 대형 이벤트가 많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이번 실적들이 AI 투자 지속성을 판단할 핵심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 반도체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과 잉여현금흐름(FCF) 전망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기존 정책에서 FCF를 주주환원 재원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여력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규모 설비투자과 적정 현금 수준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예상보다 강한 환원책이 발표될 경우 최근 조정 받은 대형주의 추가 반등을 이끌 촉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결국 KOSPI 상승 추세 연장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추세적 순매수 복귀가 중요합니다. 개인은 최근 고객예탁금 감소와 신용융자 재증가로 상반기와 같은 매수 주도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가운데, 강한 상승일에는 외국인 순매수·개인 순매도, 하락일에는 반대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따른 금리 부담 완화와 최근 VKOSPI 하락은 외국인 복귀에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기존 'KOSPI 대형주 : KOSDAQ' 전략에서는 KOSDAQ 비중을 축소하고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비중 확대를 준비할 시점입니다.

매크로 & AI 우려 완화되며 외국인 돌아오니 KOSPI 반등한다

KOSPI 주간 흐름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주간(8/7~8/13) KOSPI, KOSDAQ 각각 8.2%, 7.5% 상승. 이번주 물가지표 경계감 속 매크로 불확실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가 핵심 포인트였으나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모두 예상치 부합 및 하회하며 외국인 순매수 전환. AI 관련주 호실적 및 반도체 수출 호조 지속되며 AI Capex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실적 및 시장금리 안정화로 파훼되는 흐름
- 업종별로 IT하드웨어, IT가전, 반도체, 에너지 업종, 특히 대형주 상승.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소매, 운송 업종 하락

Category	Item	Percentage (%)
지역 (Region)	퍼시픽	0.8
	아시아	0.5
	EAFE	0.5
	세계	0.5
	유럽	0.3
	신용	-0.5
	싱가포르	2.5
	대만	2.0
	일본	1.8
	중동	1.7
국가 (Country)	이스라엘	1.0
	스페인	0.7
	이탈리아	0.5
	인도네시아	0.4
	미국	0.3
	프랑스	0.1
	중국	-0.2
	호노	-0.3
	인도	-0.4
	한국	-0.5
세계 섹터 (World Sector)	북아메리카	-0.6
	영국	-0.8
	아시아	-1.0
	멕시코	-1.5
	북유럽	-2.0
	프랑스	-6.5
	에너지	4.5
	헬스케어	2.0
	소재	1.2
	IT	0.5
세계 섹터 (World Sector)	산업재	-0.2
	유틸리티	-0.5
	음식	-0.8
	플라스틱재	-1.0
	경기소비재	-1.2
세계 섹터 (World Sector)	부동산	-1.5
	커뮤니케이션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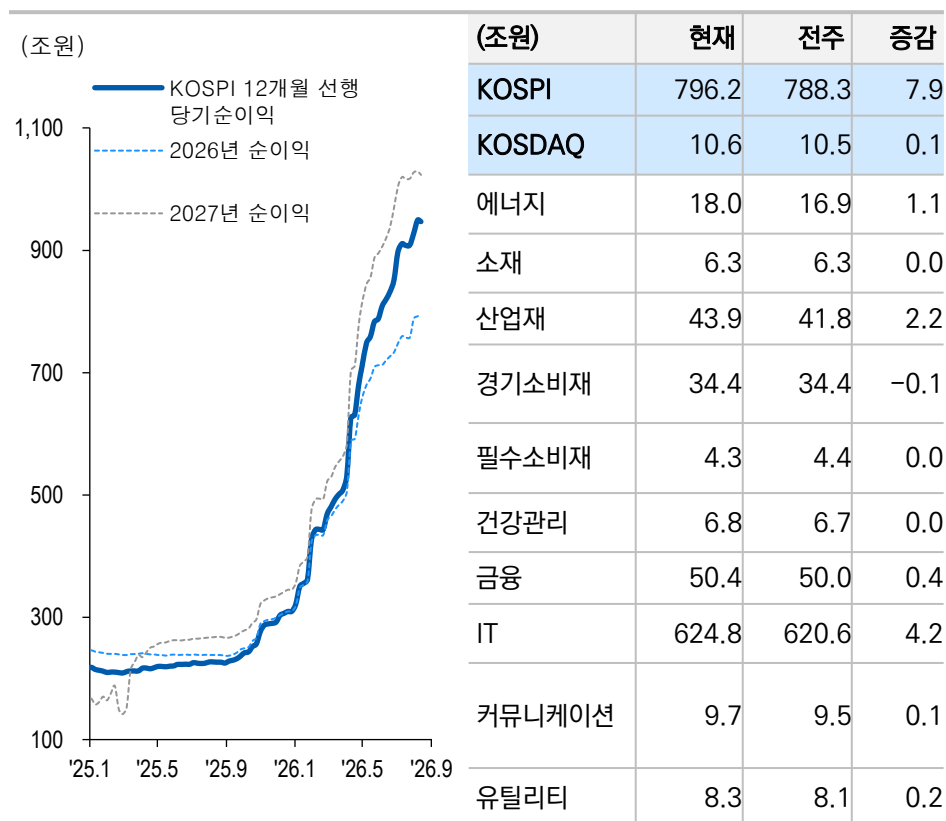
산업	비율 (%)
IT하드웨어	20.2
IT가전	13.7
반도체	12.1
에너지	10.6
상사, 자본재	8.5
공업소재	8.2
화학	6.6
기계	6.0
디스플레이	5.9
건강관리	3.5
자동차	3.0
소프트웨어	2.6
건설	2.5
철강	2.2
화장품, 의류	1.9
식품, 비철	0.9
금	0.6
퍼	0.0
헬, 리지	-0.7
백, 신	-0.9
신, 공	-1.0
의	-1.0
미디어	-1.9
석	-2.2
원	-2.9
송	-3.2
재	-4.8
수	-4.8
서비스업	-4.8

유안타증권 | 4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추세 여전히 유지, 밸류에이션 할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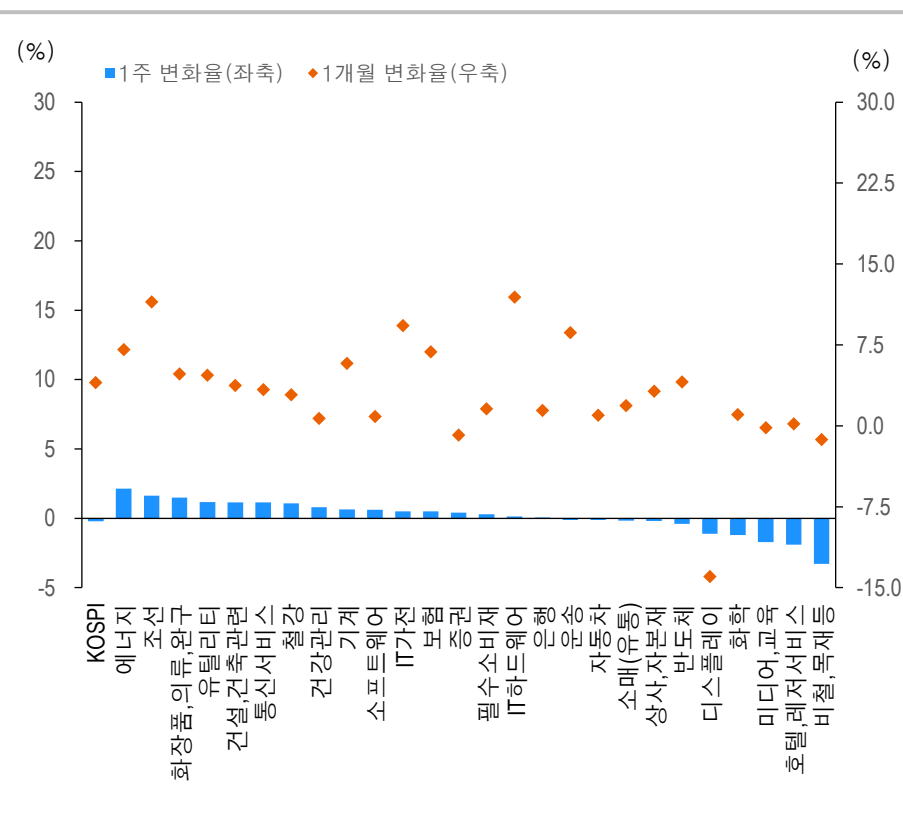
- KOSPI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지속. 실적 모멘텀 굳건했던 영향에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7.9조원 상향 조정
- IT 섹터가 4.2조원, 산업재 섹터가 2.2조원 상향 조정. KOSDAQ은 이익추정치 변화 미미하나 하향 조정되지 않았음
- 에너지, 조선, 화장품, 유틸리티, 건설 업종이 주간 EPS 변화율 상위. 비철모재, 호텔, 미디어, 화학, 디스플레이 업종은 변화율 하위 업종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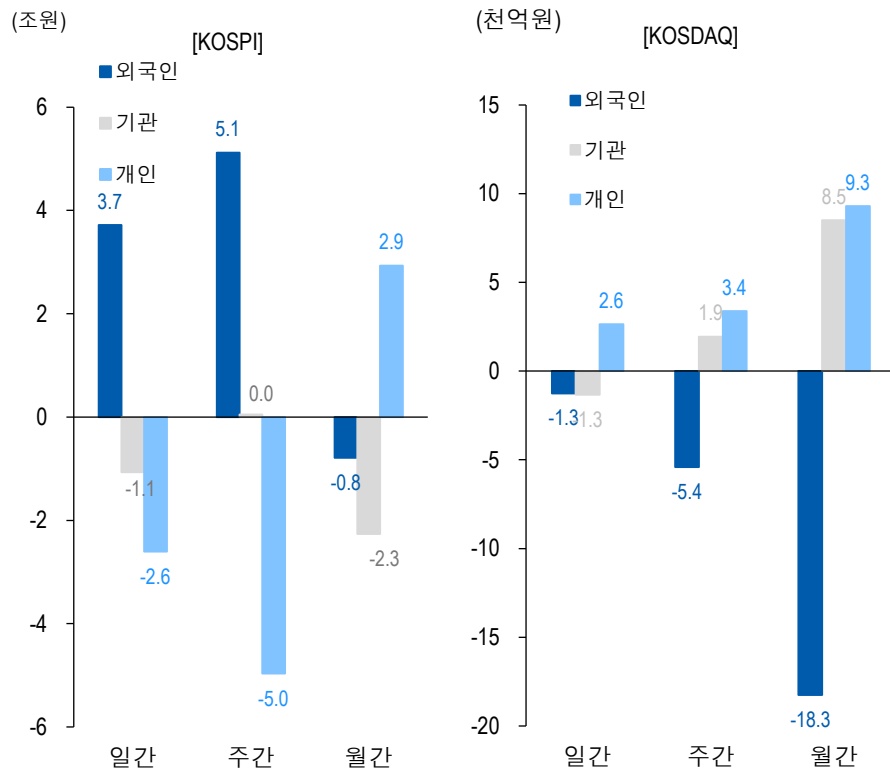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는 외국인이 KOSDAQ은 개인이 순매수하며 3주차 전거래일 상승

- 외국인 주간 KOSPI 5.1조원 순매수(개인은 5조원 순매도)하며 KOSPI 상승 견인. 순매수 업종은 절대적으로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
- 개인 자금은 KOSDAQ으로 지속 유입되는 흐름. 그간 순매수 주체였던 개인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이탈했던 상황. 개인투자자 복귀 영향에 지수 낙폭 초과대 구간 탈피하며 반등 지속 중
- 결국 수급 이슈로 인한 7월 급락을 8월 수급 정상화 과정에서 여러 불확실성 우호적으로 귀결되며 순매수 주체(코스피 외국인, 코스닥 개인) 복귀 중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반도체	반도체	필수소비재
	자동차	IT가전	유틸리티
	건강관리	IT하드웨어	조선
	화장품,의류,완구	에너지	은행
	상사,자본재	건설,건축관련	운송
순매도 상위	디스플레이	은행	건강관리
	건설,건축관련	화장품,의류,완구	IT하드웨어
	유틸리티	자동차	에너지
	IT가전	필수소비재	IT가전
	비철,목재등	조선	반도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 실적 & 매크로 이벤트 마무리

8월 3주차 주간 일정

	8월 17일(월)	8월 18일(화)	8월 19일(수)	8월 20일(목)	8월 21일(금)
경제지표			미국) FOMC 의사록		
정치	한국 휴장				
기업		미국) 홈데포	미국) 타깃	미국) 월마트	
주목 Point	하이퍼스케일러의 호실적, AI 인프라주 호실적, 예상치 하회 고용, 예상치 부합/하회 물가지표 모두 확인. 다음주 월요일 휴장인 가운데 실적 및 매크로 이벤트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 8월 26일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과 PCE 물가에 대한 경계감 있겠으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판단. 이벤트 공백 속 8월 발표된 지표 및 실적 대부분 주식시장 반등에 우호적인 뉴스 였기에 외국인 추세적 순매수세 지속 유입된다면 KOSPI 반등세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 현지 시간 기준

KOSDAQ의 반격, 적절한 타이밍이었으나 모멘텀은 죽지 않았다. KOSPI 재반격 기대

- KOSDAQ에도 지속 가능한 모멘텀 주식은 많았음. 대표적으로 2차전지. 주가 상승 → 거래대금 증가 → 실적 기대감 → 추가 주가 상승이라는 전형적인 모멘텀 구조. 줄곧 양시장 모두 강한 추세가 발생했고, 모멘텀 스타일은 KOSPI와 KOSDAQ 양쪽 베타를 모두 가지고 있었음(지수와 모멘텀 스타일 동행)
- 그러나 24년 이후 국내 모멘텀 스타일은 KOSPI와 동조화. 단순한 대형주 강세장이라기 보다 AI 인프라 테마와 산업재를 중심으로 가격-이익추정치-외국인 수급 모멘텀 모두 KOSPI 대형주에 집중된 결과. 반면 KOSDAQ은 2차전지 추세 붕괴 이후 주도 업종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면서 중기 모멘텀의 지속성 약화. 모멘텀은 최근 승자가 계속 승자일 때 가장 잘 작동. 짧은 테마 순환매가 지속된다면 KOSDAQ은 단기 트레이딩에만 유리하다는 것

외국인 수급, 이익추정치 상향 모두 KOSPI로 전환된다면 모멘텀 장세 재차 전개될 것



(실적) AI 인프라 전반 호실적 발표로 AI 인프라 수요 지속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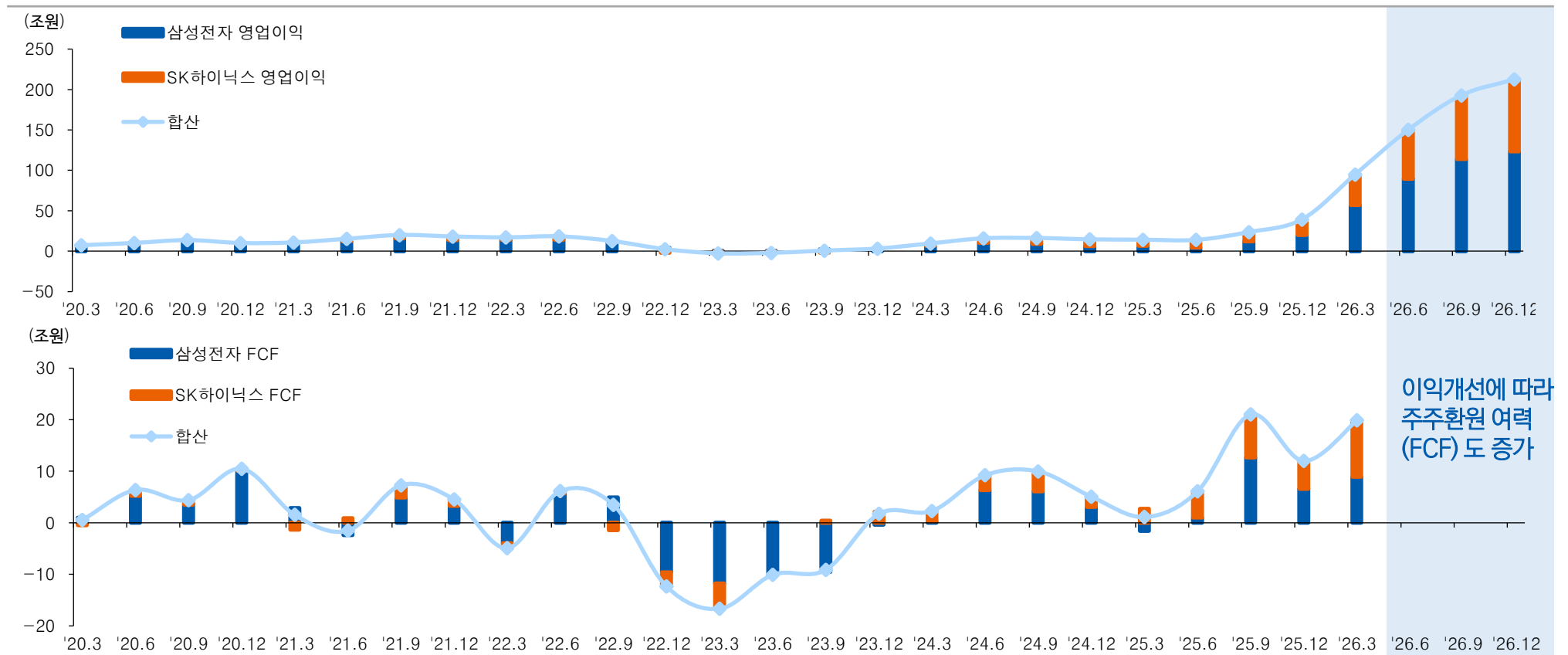
AI 인프라 수요 우려 실적으로 반박 & 엔비디아의 자금조달 플랫폼까지 더해지면서 AI Capex 수요와 자금조달 양측 우려 완화

기업	AI 인프라 영역	핵심 내용	시사점
코어워브	AI Cloud / GPU	2Q 매출 \$2.58bn, Adj. EBITDA \$1.51bn / 수주잔고 \$104bn	대규모 장기계약 증가로 AI 컴퓨트 수요 지속성 확인
네비우스	AI Cloud / GPU	2Q 매출 \$582mn(+454% YoY), Adj. EBITDA \$236mn	코어워브 외 네오클라우드로 수요 확산, AI 컴퓨트 수요 저변 확대
슈퍼마이크로	AI Server	FY4Q 매출 \$11.1bn, FY27 매출 가이드스 \$65~72bn	GPU뿐 아니라 AI 서버 투자 확대 지속, 인프라 투자 강도 확인
루멘텀	Optical / Networking	FY4Q 매출 \$1.01bn(+109%), 다음 분기 가이드스 \$1.23~1.28bn	1.6T·CPO 등 수요 확대, AI 투자가 네트워크 영역까지 확산
엔비디아 (실적외)	AI 인프라 금융	Apollo·BlackRock·Blackstone 등과 \$500bn+ 제3자 자본 조달 플랫폼 추진	실적 호조로 확인된 AI 수요에 자금조달 여력까지 보강, AI CapEx 지속성 우려 완화

AI Capex 자금조달 우려 완화에다 주주환원 기대감까지 존재

- 반도체 업황 호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과 잉여현금흐름이 크게 늘면서 주주환원 확대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 양사 모두 기존 정책상 FCF를 주주환원 재원과 연계하고 있는 만큼 실적 개선이 실제 배당 및 자사주 매입 여력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 특히 최근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완화된 상황에서 예상보다 강한 환원책이 발표될 경우 주가 추가 상승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특별배당, 정기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여러 선택지 존재하며 대규모 Capex와 적정 현금 보유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 주가의 최종 상승 강도는 최종 환원 규모와 자사주 소각 여부 등 정책의 구체성에 좌우될 전망. 8/26일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실적 모멘텀 부재함에도 주주환원이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

외국인 수급, 이익추정치 상향 모두 KOSPI로 전환된다면 모멘텀 장세 재차 전개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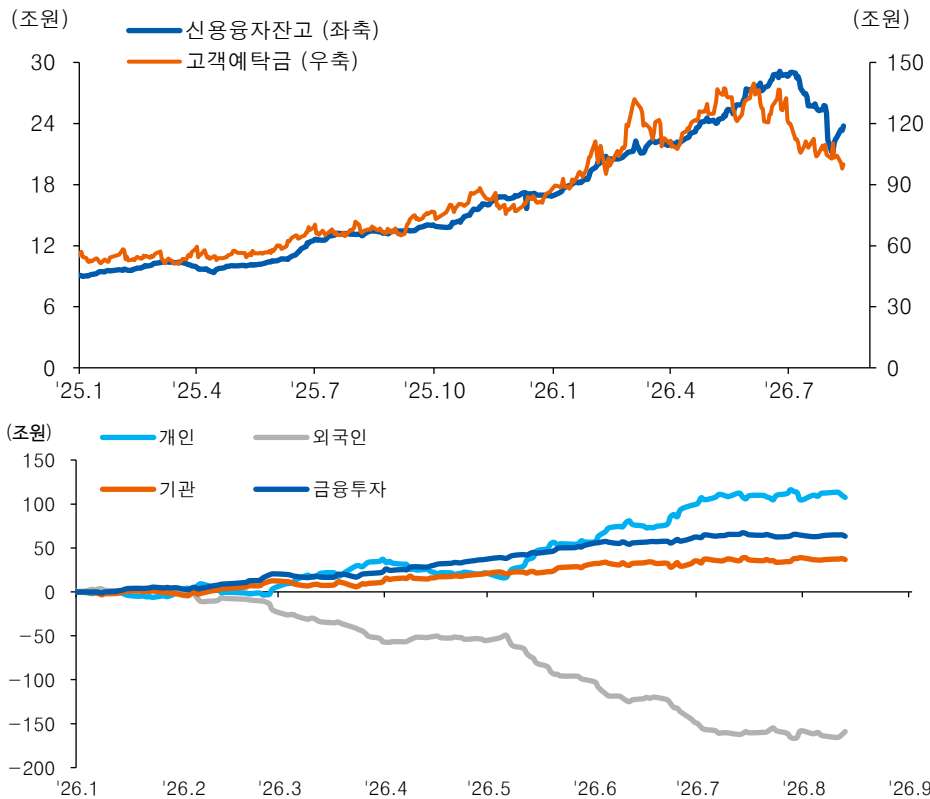


(수급) 결국 외국인 자금 추세적 복귀가 KOSPI 반등 연장 야기할 것

- 개인은 앞선 6월까지의 신고가챌리 과정과 유사한 순매수 & 지수 상승 견인 주체가 되기 어려움. 최근 예탁금이 고점 대비 약 30% 감소한 가운데 신용융자는 저점 이후 재차 증가하며 현금성 추가 매수 여력은 이전보다 약화
- 7/31이후 수급에서도 강한 상승일에는 외국인 순매수&개인 순매도가, 급락일에는 외국인 순매도&개인 순매수가 반복. 개인 수급이 추세 추종보다 조정 시 저가매수-반등 시 차익실현 성격으로 변화. 향후 KOSPI가 상승 추세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추가 레버리지 확대가 아닌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 전환이 보다 중요한 수급 조건이라는 판단

개인투자자는 신고가챌리 당시와 같은 순매수 주체로서의 역할 어려움

7/31일 반등 이후 일일 수익률 높은 날 = 외국인 자금 유입된 날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단위 : 조원)	일일 수익률 (%)	외국인 순매수대금(일간)	개인 순매수대금(일간)
2026-07-31	17.91	7.2	-8.3
2026-08-05	3.76	1.4	-1.2
2026-08-12	3.68	2.8	-3.2
2026-08-13	3.56	3.7	-2.6
2026-08-04	1.62	-0.4	0.8
2026-08-11	0.73	0.1	-0.1
2026-08-10	0.65	-1.5	0.9
2026-08-07	-0.6	-0.9	0.3
2026-08-06	-4.58	-3.3	3.3
2026-08-03	-5.12	-2.8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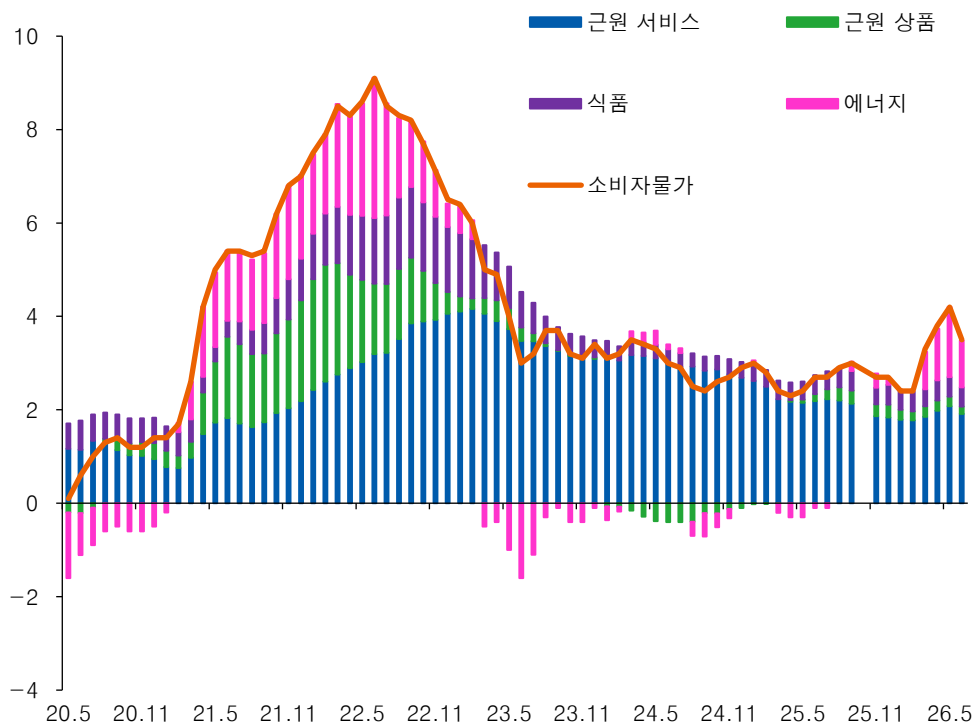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복귀 요인 ① 매크로 불확실성 긍정적으로 해소

- 비농가고용(예상치 하회) 소비자물가(예상치 부합) 및 생산자물가(예상치 하회) 모두 시장금리 상방압력 완화 요인으로 작용.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장기금리 상방 압력이 함께 완화. KOSPI는 금리 안정이 외국인 수급 회복으로 지속 연결되는지가 다음 상승 탄력의 관건
- 회사채 발행과 외부 자본조달 의존도가 높은 AI 데이터센터 Capex, 금리 인상은 자본조달 비용과 요구수익률을 높여 AI Capex의 경제성을 낮추는 반면, 물가 및 국제유가 안정은 회사채 발행 부담 완화하고 AI 투자 사이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소비자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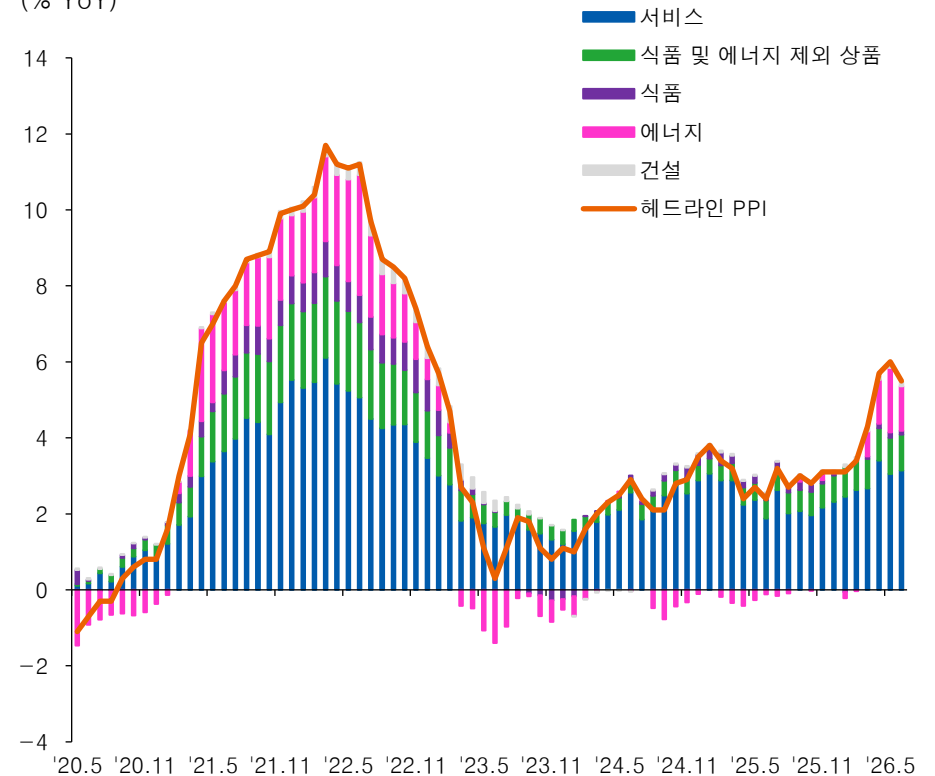
(% YoY)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생산자물가 추이

(%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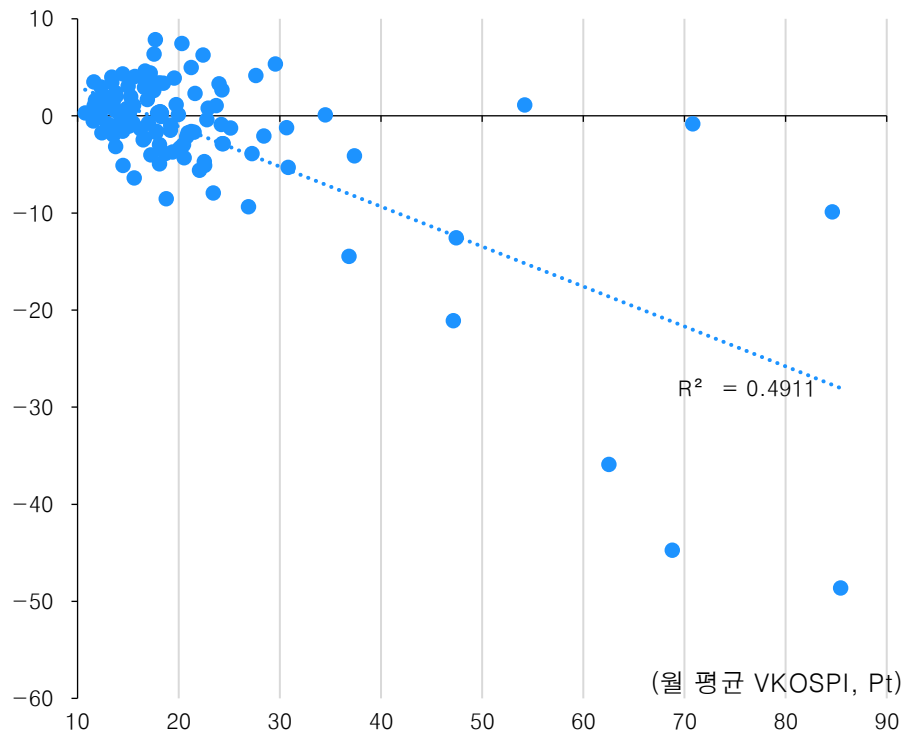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복귀 요인 ② KOSPI 변동성 완화

- 2016년 이후 VKOSPI와 외국인 수급 사이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 확인. 변동성이 높은 구간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사례 집중. 외국인 수급의 안정적인 복귀 위해서는 매크로 불확실성 감소 외에도 시장 변동성 완화가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판단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 이후 VKOSPI 및 KOSPI 일일 변동률(고가 대비 저가) 빠르게 하락. 증시 반등과 외국인 수급 개선이 동반된 복합적인 변동성 완화가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풀림 완화라는 것 만으로도 지수 양방향 변동성 완화 및 수급 분산효과 지속될 것으로 전망

KOSPI 변동성 커졌을 때 외국인은 순매도로 대응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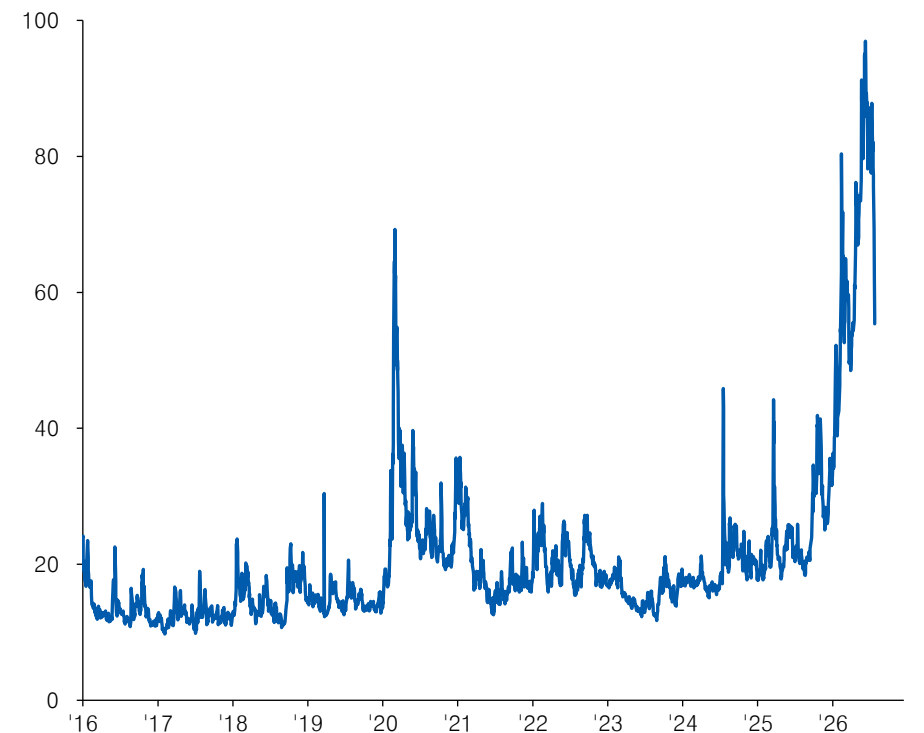
(월간 KOSPI 외국인 순매수대금, 조원)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VKOSPI 급감

(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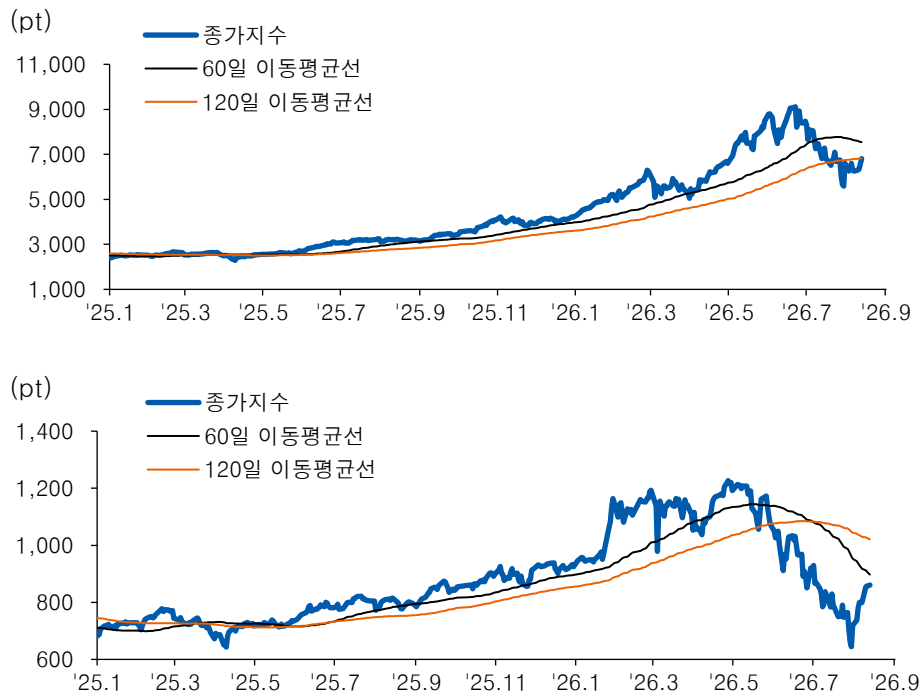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략) 바텀 피싱 성공한 KOSDAQ 비중 축소 - 반도체 & 대형주 랠리 준비

- KOSDAQ은 8월 초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되는 국면에서 수급 쏠림 완화되며 KOSPI 수익률 크게 아웃퍼폼 했으나 KOSPI 대형주 랠리 및 외국인 자금 귀환이라는 현재 시나리오('1차 중소형주 정상화 → 2차 대형 반도체 랠리' 시나리오)에서는 KOSPI 대비 상대수익률 열위 전망
- 그간 바벨 전략으로 활용했던 'KOSPI 대형주 : KOSDAQ' 비중에서 KOSDAQ 비중 축소할 필요. 수급 쏠림 정상화 국면 지속된다는 측면에서 KOSDAQ 120일선 향한 반격은 지속될 것. 그럼에도 업사이드가 7월 말 저점 구간 대비 현시점(8월 이미 많이 반등했기에) 많이 안 남았다는 것이 요지. KOSPI는 7월 31일 17.9% 급등했을 때도 도달하지 못했던 120일 이동평균선 8/13일 겨우 회복. 12개월 선행 PER 5배 초반수준에 불과하여 순매수 주체인 외국인의 추세적 귀환 동반된다면 펀더멘털-수급 모두 우호적인 흐름

120일 이평선 탈환한 KOSPI, 낙폭 초과대 구간 탈피 중인 KOSDAQ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8월 반등에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할인중인 KOSPI, 그렇지 않은 KOSDAQ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